

MOVIE

멜로드라마 두 편의 엇갈림

〈외출〉과 〈너는 내 운명〉의
대중적 접근방식

조혜정 | 영화평론가,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올 가을 한국 극장가에는 사랑을 다룬 멜로드라마들이 줄을 잇고 있다. 허진호 감독의 〈외출〉을 비롯하여 박진표 감독의 〈너는 내 운명〉, 유상욱 감독의 〈종려나무숲〉 등이 개봉하였다. 그 중에서 〈외출〉과 〈너는 내 운명〉은 감독의 재능과 출연배우들의 연기력 등에서 단연 화제를 모은 작품이었고, 멜로드라마의 서로 다른 접근방식과 그 성과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가 되고 있다.

하늘은 높아지고 햇살은 맑은 이른바 '초추(初秋)의 양광(陽光)'이 다가워도 바람이 소슬해지고 살갓에 삼삼한 기운이 감돌면 비로소 가을이 음을 안다. 가을은 행동하기보다는 사색하고 관조하는 계절이고, 그래서인지 가을의 극장가에는 언제나 사랑이야기 한두 편은 걸리게 마련이다. 가을 한국 극장가에는 사랑을 다룬 멜로드라마들이 줄을 잇고 있다. 허진호 감독의 〈외출〉을 비롯하여 박진표 감독의 〈너는 내 운명〉, 유상욱 감독의 〈종려나무숲〉이 개봉했고, 정지우 감독의 〈사랑니〉와 민규동 감독의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권종관 감독의 〈새드무비〉 등이 개봉 대기하고 있다. 한 동안 코미디와 조폭·형사 액션물이 한국영화의 대표 장르 같은 착각을 주더니 이제는 다양한 색채와 분위기의 멜로드라마가 관객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다.

개봉한 멜로드라마 중에서 〈외출〉과 〈너는 내 운명〉은 감독의 재능이나 출연배우들의 지명도와 연기력 등에서 단연 화제를 모은 작품이었고, 멜로드라마의 서로 다른 접근방식과 그 성과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가 되고 있다. 이 두 편의 엇갈림은 한국 멜로드라마의 작품성과 대중성에 대한 일종의 가늠자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시사적이다.

〈외출〉의 미덕과 패착

한국영화에서 허진호 감독은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 단 두 편으로 자신의 이름을 굵게 새겨 놓았다. 멜로드라마의 장르규칙을 차용하면서도 적절한 절제와 관조의 시선으로 영화의 품격을 유지하고, 관계(특히 가족관계)의 친화감과 삶의 가변성에 대한 응시는 영화에 온기와 연민을 스며들게 했다. 게다가 빛과 소리, 계절의 공간화는 섬세한 감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겼다.

〈외출〉은 그러한 허진호 영화의 맥락 속에 있으면서

새로운 분기점을 만든다. 진작들처럼 여자와 남자의 만남과 관계에 대한 멜로드라마지만, <외출>은 낯설고 황량하며 종종 감성 조절에 실패한다. 관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겨 진한 연민을 자아내지 못하면서 이전 영화들에서와 같이 여유롭고 생기 있는 관조의 미덕을 발휘하지도 못한다.

<외출>은 불륜을 다룬 영화이다. 어느 날 알게 된 배우자들의 외도로 고통 받는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대에 대한 연민으로 가까워지고 사랑을 느낀다. 이 같은 이야기는 낯설지 않다. 아니, 똑같다. 이미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와 시드니 폴락 감독의 <랜덤 하트>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다. 불륜을 소재로 할 경우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윤리의식이 발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적 윤리나 통념을 넘어설 만큼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환기시키거나 사회적·도덕적 장벽의 비인간성을 부각시키거나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뒤흔들 수 없는 연인들에 대한 연민을 끌어내야 한다.

<화양연화>는 사회적·도덕적 장벽에 의해 억압되고 엇갈리는 연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끌어내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역사(또는 신화)를 만들어냈고, <랜덤 하트>는 배우자들의 죽음으로 자유로워진 남녀가 사회적 대가를 치르고 자기감정에 솔직해지는 과정을 따라감으로써 보는 이의 윤리의식에 발동을 차단했다. 그러나 <외출>은 그 어느 쪽에도 다가서지 않는다. 그야말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서로에 대한 절절함도 없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냥 불확실하게 제시할 뿐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남녀의 만남은 그들에 대한 감독의 어정쩡한 위무일 뿐이다. 그것까지도 좋다. 어차피 삶이 불확실한 것이라면 매듭을 짓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일 수 있으니, 그들

의 관계를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외출>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허진호 영화의 미덕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우선 <외출>에는 미묘한 감성을 섬세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미흡하다. 어차피 멜로드라마는 감성의 영화이다. 과도한 감정적 작용을 감성으로 표현하는 장르인 것이다. 따라서 멜로드라마의 미장센과 분위기는 매우 사려 깊게 연출되어야 한다. <화양연화>는 세트의 질감



올 가을 개봉한 영화 <외출>의 한 장면

뿐만 아니라 빛의 구사, 음악, 인물의 시선, 손길, 의상 그리고 가로등에 비춰진 빗줄기까지 이 영화의 분위기와 인물의 심리를 감성적으로 포착한다. 또한 장만옥과 양조위 같은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는 그들이 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그야말로 장만옥은 뒷모습과 걸음걸이만으로 영화와 인물의 감성을 충분히 전달한다.

그러나 <외출>은 그러한 섬세함을 살리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배용준, 손예진 두 배우의 매력도 끌어내지 못했다. '윤사마' 배용준은 종종 화보에서의 멋진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연기로 녹아들지 않고 손예진의 사랑



올 가을 개봉한 영화 <너는 내 운명>의 한 장면

스러움은 불륜남녀의 복잡한 캐릭터에는 그다지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외출>에서의 인수(배용준)와 서영(손예진)은 생기를 잃어버린 캐릭터들이다. 이들이 <8월의 크리스마스>의 한석규와 심은하, <봄날은 간다>의 유지태와 이영애 커플의 매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8월의 크리스마스>의 빛(고 유영길 촬영감독의 공로지만)의 섬세함이나, <봄날은 간다>에서의 소리의 시각화 — 일렁이는 밀밭에서의 바람 소리, 대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 한밤 중 조용한 산사에 눈 내리는 소리를 소리가 아닌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 — 와 같은 뛰어난 감성의 표현이 <외출>에는 없다. 겨울 눈발과 황량하게 뿔려 있는 길은 인물들의 황폐한 심리를 연상케 하지만 인상적으로 각인시키는 데에는 실패한다. 그러다보니 관객은 인물들의 정서에 이입하지 못한다. 인물들은 울음을 토해내지만 관객은 반응할 수 없다. 배용준이 콧물까지 떨어뜨리며 울지만 그 울음의 진정성은 전달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출>의 미덕은 의외의 상황에서 부박한 삶

의 편린들을 만날 때이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의 전화에 설레고 몸단장을 한다든가, 기막힌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오며, 고스톱을 치며 점수계산을 다시 하라고 조른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누워 있는 남편 머리맡의 창을 열어 환기시키면서 먼지가 날아들자 시트를 머리끝까지 덮어씌우는 모습(마치 죽은 이의 그것처럼)과 그것을 바라보고 당혹해 하는 모습이 훨씬 영화의 디테일을 살려주고 진정성이 실려 있다. <외출>은 허진

호의 전작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감성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의 생략화법은 충분한 감정의 성숙을 종종 차단한다. 그러면서 종종 돌발적인 감정의 분출은 보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외출>에 좀체 관객이 마음을 주기 어려운 이유다.

삶과 밀착된 신파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은 순정과 노총각 석중(황정민)과 다방 레지 은하(전도연)의 눈물겨운 사랑이야기이다. 제목에서와 같이 신파적 분위기가 넘치는 영화이다. 60년대 어디쯤에선가 아직 순정이니, 낭만이니 하는 단어들 살아 있을 때 있었음직한 내용이지만, 놀랍게도 이 영화는 시대착오적인 신파의 면모들을 삶에 밀착하여 수용함으로써 현재성을 획득하고 있다. 영화에는 지금의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고단한 현실이 배경으로 또는 인물의 삶에 개입하고 매매춘이나 인신매매, 에이즈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모티프로 활용된다. 가난하고 고된 농촌에 시집오는 여성들이 없어 총각들은 몽달귀신이 될

불륜을 소재로 할 경우 경계해야 할 것은 보편적 윤리나 통념을 넘어설 만큼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환기시키거나 사회적 장벽의 비인간성을 부각시켜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뒹굴 수 없는 연인들에 대한 연민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이고, 그래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처녀를 소개하는 결혼중개업소의 사기극에도 놀아나야 한다. 살기 위해 다방 레지들은 티켓을 끊어 몸과 마음을 유린당한다. 너는 내 운명이고 너와 함께라면 '죽어도 좋아' 식의 닭살 돋는 사랑타령이나 운명론은 삶의 고단함과 남루함 그리고 잔인함에 대한 환기를 통하여 '지독한 사랑'으로 거듭난다.

이 영화가 신과의 구태의연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배우의 힘이 강력한 자장을 형성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황정민과 전도연은 순정과 노총각과 영악하고 닳아빠진 다방 레지를 더할 수 없는 호연으로 형상화했다. 특히 <로드 무비>의 동성애자,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의 소심한 드러머, <바람난 가족>에서의 인권변호사이자 외도하는 남편, <달콤한 인생>에서의 잔인한 조직보스로 연기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넓은 황정민은 이번에는 어수룩한 말씨와 굼뜬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농촌 총각을 체화했다. 석중이 농약을 들이키고 성대를 다쳐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은하를 부르고 발버둥치는 모습에서 이 영화가 '눈물'을 주요 전략요소로 삼고 있다는 것을 능히 알고 있음에도 관객

으로 하여금 훌쩍이게 하는 것은 황정민의 연기의 힘이다. 그의 연기는 감성적인 동시에 진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탓에 그로부터 달아나기란 애초에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캐릭터의 성격과 심리를 나타내는 디테일—그는 은하를 위하여 녹음기를 목에 걸고 왁스의 노래를 들려주며, 은하와 잠자리를 하기 전에 신나서 엉덩이를 흔들며 엉덩이 사이에 낀 팬티를 잡아 빼낸다거나, 석중의 누렁게 찌든 팬티를 늙은 어머니가 타박하는 것 등—과 생활의 편린들이 살아 있는 것도 이 영화의 재미와 매력을 배가시켜 준다.

<너는 내 운명>은 현실에 발 디딘 멜로드라마의 흡인력과 생동감 있는 배우의 연기가 선사하는 매력이 얼마나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외출>은 실패했고 따라서 관객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한국 멜로드라마 두 편의 대중적 접근방식의 차이는 결국 관객의 선택의 차이를 가져왔다. 단순비교를 하는 무리를 무릅쓰고라도 이것은 취향이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篤심과 진정성의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